



기호 1 이 만 선

1956년 07월 15일생(만64세)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풍양중앙로 68, 104동 1501호(풍암동 금호1차)

학력 및 경력

- 동강대학 졸업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대한민국훈장(산업포장) 수상
- 국무총리 표창
- 중소기업 경영대상 수상
- 2018 메세나대상(Arts & Business)수상
- (前)대우통신 10년 근무
- (現)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
- (現)(사)카메라타전남(오케스트라)이사장
- (現)(주)오성정보통신 대표이사

협동조합 경영에 관한 소견

■ 조합원을 위한 정책

- 1** 직생 품목을 안정적이며 더욱 공고히 하여 조합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노력한 만큼의 영업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2** 조합원간 특허 공동사용 확대를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 하며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없애고 판로 확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 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및 한국비대면산업협회와의 협업을 통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제품 창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4** 조합 수수료를 1%까지 낮추겠습니다.

■ 조합 운영

- 1** 집행부의 획기적인 쇄신을 단행하겠습니다.
- 2** 조합원들이 맡긴 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님들입니다. 조합원들을 위해 일한다는 책임과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4** 조합원 회원을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강하고 단합된 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여러분,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제27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이만선**입니다.

정중히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많으셨지만 슬기롭게 대처해왔고 앞으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처럼 우리 조합은 많은 아픔을 겪고 있으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아픔이 있고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는지는 굳이 탓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치유할 때이며, 바로 여러분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단결하고 협동하여 어려운 외부 상황을 이겨내고 힘찬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첫째

직접생산 품목을 안정적이며 더욱 공고히 하여 조합원들이 노력한 만큼의 영업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통합배선반에 대하여 조합원간 특허 공동 사용 확대와 조합 공동 브랜드를 연구하여 수익을 극대화 하며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없애고 판로 확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비대면산업협회와 협업을 통하여 변화 하는 시대에 맞는 제품 창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조합의 직접생산 감독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임하였고 중앙회는 약 600여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되돌려 놓겠으며, 통신공사협회와의 관계 또한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확실히 공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섯째

조합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1%까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평균 매출이 1,050억 입니다. 그 중 우리 조합 1년 운영에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집행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읽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덮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회사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조합원 여러분에게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조합 운영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획기적인 쇄신을 단행하겠습니다.

채용, 연봉, 업무, 승진, 퇴직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합원들만을 위하여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조합원들이 맡긴 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 외부의 영향 없이 정해진 업무 매뉴얼에 의하여 직접생산 품목의 신규 승인 및 재승인 등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여러분들입니다. 조합원들을 위해 일한다는 책임과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조합원 회원을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강하고 단합된 조합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이사장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안합니다.

앞으로 더 젊고 패기와 열정이 있는 이사장들이 조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17년 동안 단독 재임으로 선의의 발전적 경쟁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고 건전한 비판과 비평을 할 수 없으며 보다 효율적이면서 발전적인 제안을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 배정, 임원의 도덕적 해이 등 바로 장기집권의 폐해입니다.

여섯째

이사 선임에 대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의 최소의 견제 장치가 이사회입니다. 이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학업을 마쳤습니다.

대우통신에 입사해서 10년간 직장 생활을 한 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지금 자산규모 500억의 견실한 사업체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 사회 곳곳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념으로 저는 매년 장학금, 출산장려금, 예술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 초기, 우리 조합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조합에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여력도 있으며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아직은 쓸만합니다. 드라이버 비거리는 줄었지만 일주일에 8번 라운딩은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4년간 이만선에게 맡겨주신다면 그동안의 쌓아온 역량을 쏟아부어 멋진 조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람

이만선

1